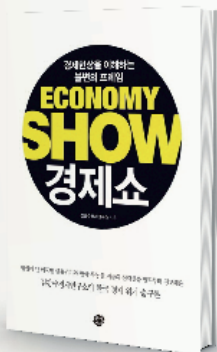




책 속으로

‘공부는 평생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기술인들이야 방송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알아야 할 것들과 생각의 깊이가 점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시각 정보만이 아닌 감성과 지식의 보고인 책을 다루어보면 어떨까 싶어 방송과 기술에서는 ‘책 속으로’를 통해 읽을 만한 책 소개와 함께 기술인이 직접 읽고, 그 소감을 독자와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면의 부족으로 많은 책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쇼 ECONOMY SHOW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불변의 프레임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왕의서재 / 정가 14,000원

이 책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틀 내지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다. 경제적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경제 정책, 막강한 경제 주체인 기업의 경제 활동 대부분이 화려하게 치장된 볼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제쇼’라는 것. 왜 10년도 넘게 불황이 계속되고 언제 부턴가 저도 모르게 경제불황이 익숙해져 버렸는지 경제학자의 양심으로 고발하고 왜도난마로 본질과 해법을 찾는다.



무리뉴, 그 남자의 기술

지루상에 현존하는 단 하나의 특별한 리더

한준 지음 / 브레인스토어 / 정가 14,000원

도전적인 행동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화법, 건방져 보일 정도의 지적임으로 주목받는 한 남자가 있다. “난 내가 특별한 존재(Special One)라고 생각한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이 남자. 유명 록스타처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사람은 바로 첼시 FC의 감독 주제 무리뉴다. 무리뉴는 자신의 철학을 믿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선보이는 감독으로 무리뉴의 11가지 성공 비결을 통해 당신도 특별한 리더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수업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법륜 지음 / 유근택 그림 / 휴(休) / 정가 13,000원

《스님의 주례사》, 《엄마 수업》으로 세대를 넘나드는 인생의 멘토로서 메마른 세상에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법륜 스님이 이번엔 『인생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방향하는 이들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죽비 같은 인생의 지혜를 풀어내었다. 누구에게나 닥쳐올 인생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숭한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행복해지는 인생의 길을 제시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지음 / 안기순 역음 / 김선욱 감수
와이즈베리 / 정가 16,000원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시장논리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한 시장만능주의의 자화상이다. 저자는 시장의 무한한 확장에 속절없이 당할 것이 아니라 공적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샌델 특유의 문답식 토론과 도발적 문제제기, 그리고 치밀한 논리로 일상과 닿아 있는 생생한 사례들을 파헤치며 시장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철학논쟁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빅 히스토리 BIG HISTORY

137억 년의 역사가 이 한 권에 담겼다

데이비드 크리스천, 밥 베인 지음 / 조지형 역음

해나무 / 정가 15,000원

한 권으로 읽는 우주, 지구, 인간의 역사. 데이비드 크리스천과 밥 베인의 《빅 히스토리(Big History)》는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현대 사회와 미래까지 다루는 역사책이다.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고고학, 인류학, 역사 등 여러 다른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137억 년이라는 우주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조망한다. 빌 게이츠가 전격 지원하고 있는 '빅 히스토리 프로젝트(Big History Project)' 교육과정의 핵심 강의를 우리말로 번역했다.

책을 읽고 나서

+ 한광만 SBS TV기술팀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목표를 정해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개개인의 몫이고 당장 점심시간에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도 선택이다. 하지만 현대인이라면 느낄 것이다.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 선택은 물론이고 식당에서 메뉴 선택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을. 《선택의 조건》은 물질적으로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요로워진 현대사회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진 현대인들이 선택에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 바스 카스트는 심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이다. 그는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저명한 연구자들에 의해 시행된 실험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실험들은 대부분 우리의 생활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경우들이고 그 결과가 가져오는 미묘하면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소개한다. 실험 결과들은 현대인들의 선택 습관에 대해 아이러니한 점을 꼬집으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를 때 모든 매장을 둘러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구입한 사람과 평소에 즐겨 찾던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구입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 모든 매장을 뒤져서 옷을 고른 사람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한다. 모든 매장을 거친 사람은 이곳에 없는, 더 좋은 대안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련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고른 옷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반면 즐겨 찾는 곳에 둘러 한정적인 선택지에서 옷을 고르면 "이 옷이면 충분해"라는 만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옷뿐만이 아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도 우리의 고민은 시작된다. 광고에서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어필한다. 다양한 맛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것 같은 이 광고는 매장에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리고 수많은 채널이 존재하는 케이블 TV를 진득하니 시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저 TV를 틀어놓고 더 재미있는 채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채널을 계속 돌리며 결국에는 채널을 한 바퀴 다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선택지의 홍수에 빠져 살고 있다.

이 책은 선택의 폭이 크게 늘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결코 행복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현대인의 삶을 재조명해본다. 우리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이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선택지 앞에서 행동하게 되는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고민의 일부분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너무 복잡해진 우리의 삶을 머리로 생각해서만이 아닌 마음이 시키는 대로 빨리 골라 실행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본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삶의 여유를 되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선택의 조건

바스 카스트 지음 / 정인희 옮김